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5회 정례회
2021.11.23.(화)

검 토 보 고 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 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광역도시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도시기능 분담과 상호연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 목표연도 2040년
- 공간적 : 행복도시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개 시군), 12,193.2㎢

○ 비전 및 목표

- 비전 :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 목표(3) :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 국토중추,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 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

○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관리
- 교통 및 물류 : 협력네트워크에 기반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 녹지관리 : 행복도시권 녹지공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확대
- 환경보전 : 물순환, 대기질 관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환경 추구
- 광역시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갈등 관리
- 경관 : 행복도시권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연·도시 자원을 활용
- 문화·여가공간 : 행복도시권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 형성과 농어촌 및 종교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 방재 및 안전 : 포용적 안전관리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강화

○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 행복도시권 공간구조 및 녹지체계와 부합하는 관리방안 설정

○ 집행 및 관리계획

- 광역도시계획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역할분담, 광역거버넌스 구성 등

5. 검토의견

○ 본 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수립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도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사항임.

○ 광역계획권의 중복 지정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계획 간의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광역계획권의 확대 및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전·세종·충북·충남의 22개 시군을 행복도시권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을 비전으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 국토중추, 국제 경쟁력을 가진 新 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의 3개의 정책 목표와
9개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미세먼지, 대규모 팬데믹 등 지역행정구역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광역적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광역거점 간의 교통연계 및 광역도시기반시설 공동 설치 및 이용 등을 통한 행복도시권의 상생발전으로 충청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수도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지침적 성격으로 자체적인 실행수단이 미비하고, 4개 시·도 또는 시·군간 기능분담에 따른 이견·조정으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행복도시권 내 22개 시·군 중 충북의 충주, 제천, 단양이 제외되어 충북 북부권 발전을 위해 관광, 교통 등 협력이 가능한 연계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